

# 超現實的 透視와 詩的 Image

朴 勝 朝\*

- I. 序 論
- II. Moralisation 과 Démoralisation
- III. 現實의 透視性
- IV. 詩的 空間意識
- V. 結 論

## I. 序 論

文學的 表現의 內容에는 어떤 상태이든 道德性이 담겨있어야 하며 社會的 狀況이 제시되는 문제의 노출을 보여주어야 한다.

André Breton 은 그의 作品 性格에서 종래의 外形的이고 도식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無意味를 표방하던 Dada 의 정립이 세워지지 못하고 자연소멸한 이후 종래의 상황과는 다른 現像의 社會적 상황 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超現實的인 면으로 現代狀況을 풀어보려고 한다.

Breton 의 小說 作品인 Nadja. L'Amour fou. Arcane 17에서 쉽게 간파할 수 있겠지만 本論文에서는 그의 詩的 표현의 影像을 중심으로 時·空間의 상징적인 사물의 묘사에서 構想하고 있는 개념을 物質보다 精神, 現實보다 非現實, 實存보다 神話에서 超現實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組織的인 社會體系와 科學文明의 精確性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동기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人間性 喪失로 종래의 外的 行動의 moral 개념에 따르는 意識에서 벗어나 人間의 本質的인 自我意識과 事物의 內的 本質의 연대성을 探求하려는 경향으로 객觀性을 느끼지 못하고 주관적인 단면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軸을 잃고 있는 樣相은 공통개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으므로 道德性이나 眞實性을 外的 대상인 客觀性을 응시하는 정신적 淨化나 浪漫을 구사하기에는 너무 혼미한 상황으로 자신의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既存秩序를 파괴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상호연관성을 거부하려 하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정의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Breton 은 詩的 表現에서 雲霧에 가리어진 현상을 일정한 規範에 제한시켜 記

\* 경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述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노출이기 때문에 詩的 表現에 있어서도 作詩法을 무시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Camus 나 Sartre 가 실존주의 인식을 「不條理」한 현상과 「存在」에 관한 의미로서 규명하려는 것으로 현대문학 사상의 개념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自由에 대한 意識과 자신의 存在意識을 他에 의하여 느끼는 유대성과 責任意識으로 行動하는 자신의 理性的인 판단과는 다르게 발로되는 것은 잠재의식 현상이 현실상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反動的인 감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사물에 대한 수수께끼같은 image 나 mot의 外的 현상을 벗어난 人間의 무의식적 行動은 不可思議한 요소를 담고 太古로부터 현재까지 意識의 探層에 깔려 있는 心性의 本質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心理作用은 여행객이 차창을 통하여 보고 있는 광경의 전개를 논리적으로 제각기 묘사하듯이 일정한 선별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詩的인 표현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풀어보려고 한다.

幻想의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몽상가는 실증적이고 계산적인 사상이 없다. 또한 幻覺的인 意識속에 있는 狂人은 순수와 정직성을 지니고 있다. 現存하고 있는 사물의 이미지는 숨겨 있는 소리, 침묵의 소리가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그대로 自動記述的인 形式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구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Le langage est originellement ancré dans la sexualité, mais notre civilisation a progressivement obturé la source du désir et les jeux de langage qui lui sont inhérents.<sup>1)</sup>

Breton 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은 체계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전통성을 거부하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언어는 창조를 뜻하며 욕망의 근원이며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生成된 것이므로 시대상황과 정신 결합으로 형성되는 道德性을 초현실적인 몇편의 poèmes 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文學性을 살펴보는 것이다.

## II. Moralisation 과 Démoralisation

文學에서 作品에 반영시키고 있는 道德性이나 可視的이고 可聽的인 현상을 인간의 外的 行動으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不可視的인 感情의 傳達이 더욱 작품의 중요한 성격으로 말할 수 있다. 시대의 특성을 지닌 moral 은 어느면에서는 공통적인 脈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현상을 비도덕성을 유발하는 많은 요소가 인간성 상실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moral 이나 immoral 로 규정지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과는 다르게 démoralisation 한 상태로 변혁되는 의식의 변화를 뜻하며 잠재의식의 노출이 不知不識間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1) Paule Plouvier, *Poétique de l'amour chez André Breton*. Librairie José, Corti Paris, 1983, p. 8.

현상이다. 객관적 의식에 따른 행동만을 할 수 없는 外的 要素에 거부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內的 心理는 moral 의 의식 없이 표현되는 것은 immoral 이라기보다 démoralisation 인 것이다.

Breton 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삶은 인간성 파멸의 현상을 자초하는 것을 자동기술적 방법으로 묘사하는 소설과 詩로 보여주며 자신의 상실된 意識을 회복하려는 필요성을 많은 작품에서 보이며 Breton 은 많은 작가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精神分析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식은 《le domaine infini du possible》<sup>2)</sup>을 향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한한 內的 인식의 현상을 보여 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Je》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l'autre》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은 의식의 해방을 뜻한다.

Le Manifeste 에서 Breton 은 《Où s'arrête la sécurité de l'esprit ?》라는 自問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

Il faut prendre beaucoup sur moi pour vouloir s'établir dans ces régions reculées où tout a d'abord l'air de se passer si mal, à plus forte raison pour vouloir y conduire quelqu'un.<sup>3)</sup>

초현실주의의 절대성은 자신에게 있는 잠재의식의 표출이며 자신의 가장 명백한 사상을 유보시킬 수 없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것이 될 수 있기도 하며 주위 환경에 대한 두 秩序중 하나를 집단의식에 의한 moral 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동요하는 의식상태인 démoralisation 으로 초현실주의 사상이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Dada 의 등장이 있었지만 문학적 사상은 정립하지 못하고 간판을 거두게 되었으나 1924년 le Manifeste 로 인하여 새로운 사상의 성격을 밝히게 되었지만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정신과 행동에 混沌을 자아내게 되었으며 일상적인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적인 발생인 靈感에 매달리지 않고 社會的이고 藝術的인 범주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중심사상을 찾으려고 하였고 內的인 다양한 변화를 透視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활동으로 기다림이 아닌 탐색을 위주로 행동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문학적 moral 성격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L'atmosphère se vicie quand on reste toujours dans la même chambre.<sup>4)</sup>

그러나 기다림의 주위 상황은 있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변화를 요구하고 불명확한 것을 규명하여야 하는 의식을 느끼고 있다. 표면적인 모순은 삶의 운동을 반영하며 외부적인 상황은 뚜렷한 의식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2) Marguerite Bonnet, *André Breton*, Librairie José Corti, Paris, 1975, p. 322.

3) *Ibid.*, p. 357.

4) *Ibid.*, p. 316.

순환되지 않는 공기가 탁해지듯이 의식은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태로 발로된다.

Mais quoi? qui le dira?<sup>5)</sup>

Et toujours ce besoin de quelque chose qui tarde à se produire - qui ne se produire jamais.<sup>6)</sup>

자신과 타인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에 대한 공통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만남에서 본질을 발견하며 자신의 마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무의식적 현상이 문학에 적용되고 사회적인 현상이 대상으로 버려져서는 안되며 문학적인 표현에서 괴리되어서도 안된다.

문학은 도덕성의 퇴폐감 immoral이 아닌 démoralisation으로 意識의 노출인 일반적인 사회 양상의 흐름과 逆流하는 감정이 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Raymond Roussel은 집단적 집단 내용을 보이는 점에 관객들은 연극의 풍자 내용까지도 비웃고 있으며 Desnos는 현재 대중의 의식을 「nécessairement imbécile」 상태에서 인습적인 행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狂的인 표현을 수증한다. 또한 知的 分辨능력을 수수께끼 놀이같이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luard는 현실상황의 불가사의한 복잡하고 심오하게 문학성격을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 탈출하려는 무의식적인 표현은 불안과 혐오스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불가사의적인 의식의 본질을 풀어 보려는 많은 논쟁을 자아내고 있다. Breton은 《les conditions de la lutte》에서 현대적 상황을 파헤치려고 시도하고 자동기술적인 방법은 나침반을 갖지 않고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표현으로도 복합적 현대사회 현상의 多立的 要素를 充足시킬 수 없으며 일정한 방향을 취하지도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있다. Breton은 《numéro démoralisation》이라는 제목으로 反文學的 의미를 질식할 것같은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Desnos의 수필집인 《André Breton ou Face à l'infini》와 Breton의 수필집 《L'inconnu》는 예술적 활동이나 인간적 행동 규범의 준수에 따르는 묘사와 삶의 본질 파악에 전념하는 내적 현상을 갈파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미묘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행동의 한계성을 두고 주위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현실로부터 비현실적 변화의 성격은 詩的인 사상의 moral이 어둠속에서 사물을 分辨하려고 하듯이 병어리와 나누는 대화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처럼 자신의 입장에 따라 공감하는 이 현대 moral은 immoral이 아닌 moralisation이 démoralisation으로 轉移되는 意識의 감정노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5) Ibid, p. 316.

6) Ibid, p. 316.

### Ⅲ. 現實의 透視性

Le Manifeste에 담고 있는 난해한 요소들은 현대적인 사회질서와 같다. Breton은 작품을 구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생략법을 활용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작품 속에 명시하여 초현실적 요소를 제시하려고 한다. 다양한 현상, 산만한 기술내용, 단편적이지만 열정적이고 매혹감을 주는 交錯感, 단정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이 제시된 문맥에서 얻어진 확신성을 작품의 목적으로 탐지하는 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적 삶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믿음은 상실된다. 현실생활의 광적인 현상과 진실한 생활을 대조하고 분별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한편 구조적인 반대경향을 나타낸다.

“Ce que la vie a de plus précaire”

“l’homme, ce rêveur définitif.”<sup>7)</sup>

삶의 상태는 불안정한 현실, 믿음이 상실된 현실, 불확실한 현실, 구조적인 현실인 4개. 요소의 極을 가리키고 있다. Breton은 미학적 경향을 벗어난 外形的인 면에서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은 무용한 태도라고 말한다. 실용적이고 독단적인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은 무한히 변형함으로 정신적인 la plus grande liberté는 재인식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의미는 par et pour 라는 표현으로 삶의 수단과 존재 의미를 말할 수 있듯이 정신의 자유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상의 자유는 상상 자체로 두지 않고 창조 의 투시처럼 존재의 투시에서 Breton은 영원 속에 결합한다. Nadja가 현실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성격을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싸여있는 것이며 망상적인 자기 쾌락에 빠져드는 공상속에 방황하는 위험한 여행에 비유할 수 있다. 허구에 찬 사상은 구체적인 능력의 제시 없는 다른 상상 속에 끌려들어간다. 이러한 모습은 한계성을 보이는 현실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Breton의 불만은 《néant》에 투시된 심리분석으로 결정되는 작품의 요소로 삼고 있다. le je와 l’autre의 한계를 짓지 못하고 전체의 사상으로 통합되는 《nous》로서 살피본다. 삶의 애매성은 형태적 모습을 밝혀주지 못하며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Roussel의 《surréaliste dans l’anecdote》에서 사실성을 모호화하여 현실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Breton은 사회적인 연관성이 효과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

“Je veux qu’on se taise quand on cesse de ressentir”<sup>8)</sup>

7) Ibid, p. 338.

8) Ibid, p. 340.

현실을 비합리적으로 모방하고 본질을 우연성으로 풀어보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항구성의 불투명함을 해결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베일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神秘는 分光器의 작용에 의하여 分散되는 색조를 보이는 빛의 현상이나, 시간을 한점으로 집합시키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과 같다.

Breton 이 記述하고 있는 불만족스러움은 언어적인 표현의 불가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현실에 대한 마음의 암울한 力動現像인 것이다. 상상은 자신을 탐색하는 진실한 사상이기 때문에 논리성으로 상상을 한정지을 수 없다. 새로운 인식에 대한 문제를 프로이드적인 정신분석적 매혹을 거부하며 부수적으로 꿈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리에 모든 사실을 정립하여 생각하려고 한다.

Freud 는 현실의 사회현상의 분산된 사상을 수정처럼 투시하고 싶어하면서 사회현상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꿈에 관하여 의문을 해결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간접적이고 불충분한 인식일뿐이다. 정신에 상관된 활동에 꿈의 중요성과 내재성을 행동의 반응으로 보고 있다. 주관적인 비밀스러움과 밀려드는 의혹을 일반적으로 관련지우려는 확신감을 강요하는 것은 《tout est possible》인 삶의 양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초현실주의와 꿈의 역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꿈에 대하여 동의할만한 가치성이 없고 믿을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纏着되는 단순성보다 더 수수께끼적인 현상으로 결론짓는다. 꿈의 반영은 믿음의 행동위에 또한 불가사의한 점을 상상케하는 요소를 Nadja 와 L'Amour fou 에서 살필 수 있다. 순수하지 않은 의미는 불가사의로부터 허용된 일반적인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양의 문학은 점차 동양적이고 동양의 靈的 종교의 불가사의의 신비성과 공통의식을 취하는 《entaché de puérilité》<sup>9)</sup>한 진리를 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연관성 없는 문학은 마네킹같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l'irréremédiable inquiétude humaine》<sup>10)</sup>를 나타내는 Chirico 의 얼굴 없는 마네킹이나 혼미한 상태의 천기증으로 전체성과 절대적 현실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존재물을 꿈의 透視로 內在性을 파악하는 것은 초현실의 근본이 된다.

#### Ⅳ. 詩的 空間意識

Breton 의 자유로운 진실한 삶의 詩的 표현과 Baudelaire 의 상징적 詩的 표현에 창조적 작용을 부과하고 내용에 상당히 접근하는 詩는 offensive 한 붕괴로 자신의 사상과 일치하게 할 수 있고 인간적 범주의 세계를 한정시키며 욕망과 지배의식을 접합시키고 있다. 창조성인 護敎의 수레바퀴로서 Breton 은 영매주의에 입각한 존재와 가능성의 의식을 취하였다. 半睡眠

9) Ibid, p. 343.

10) Ibid, p. 344.

狀態, 催眠, 꿈의 이야기를 자동기술적으로 묘사하고 언어유희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만남의 내용은 les Entretiens에서 많은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인식의 시적 표현은 자동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이 진실한 성격을 드러내고 존재를 분석하고 있다. 형상적 존재는 外在性의 관련을 암시하고 종교적 질서와 규범을 암시한다. 공간적 초현실적 소리는 현기증을 일으킬 때 폭풍우 소리를 듣는 것같은 무의식적 느낌의 표현이다.

Breton의 les Champs magnétiques에 한편의 詩 「Usine」에서는 다각적인 분야로부터 인식되는 연관은 선형의 요소를 배어놓을 수 없이 外的 現象과 內的 現象이 함께 동화되는 영상을 그리고 있다.

또한 「Lune de miel」에서는 지상이나 時・空間의 모든 영상을 떠도는 인간의 감각은 형체 없는 투시의 세계를 날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성도 받지 않고 시간성도 느끼지 못하고 《la coulée》의 영원성과 환각의 함정에 빠져 催眠의인 상황으로 理性을 작성케하고 《le rayon invisible》은 위험속에 의식을 갖게되는 것으로 본다.

자동기술의 詩的 기술 성격을 보여주는 「poisson soluble」은 심오한 의식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서 Julien Gracq도 감동한 바 있다. —par hasard는 시각적인 분야를 벗어난 움직임 없이 전개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세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친숙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객관물의 시적 의식에 빠지는 것은 확실한 대화를 분명히 밝히어야 하고 고의적인 《la vérité absolue》의 결론은 대화의 형태이고 여러 주의점들이 또 다른 것을 유혹한다. 독백으로는 특별한 추리에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성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aussi desaffecteds que possible은 근본적으로 상대적인 두 요소의 단순한 언어적 외부의 존재는 la Nature에 잠길 것이다. 무엇이든 형상화할 대상물은 정신의 우연성에 일치되어야하는 두 대상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신비성이 포함되어 있다. poisson soluble의 시적 유사성은 可視世界를 통하여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있는 不可視世界인 것이다. 유사성은 경험적인 것이나 전체적 자유를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이 신비적 類似로서 상실된 대상물을 재분석하여 전체개념은 같은 꿈을 갖고 감각적 형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초자연적 경향을 보인다. 詩的 언어는 대상물에 대하여 惰性和 拒否를 끊임 없이 상관성을 반응시키고 있는 모습은 현실을 투시하고 외형적인 현상을 내적 본질로 변형하여 용해시키고 있음을 본다.

Moins de temps qu'il n'en faut pour  
le dire, moins de larmes qu'il n'en faut pour mourir . . . . .  
Irai-je à A, retournerai-je à B, Changerai-je à X? . . . . .  
Ah! que les parallèles sont belles sous la perpendiculaire de Dieu."<sup>11)</sup>

11) André Breton, *Poèmes*, Gallimard, Paris, 1978, p. 47.

모든 것은 並列하고 있는 것이며 詩的 표현의 합리적 사상은 결정적으로 선행적인 명백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순수히 변화시키려는 혁명적인 성격에 관하여 주장하고 사랑과 자유는 상상적 용해인 것의 존재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Les personnages de la comédie se rassemblent sous un porche, . . . . .

Les stalactites de la nuit, de toutes couleurs ravivent encore l'éclat des flammes vers cythère et la rosée, qui agrafe lentement son collier aux épaules des plantes, est un prisme merveilleux pour la fin du siècles des siècles. . . . .

Sur les remparts de la ville, une compagnie de chateau-légers, que caressaient les grisailles du soir, corsets et cottes de maille, va s'embusquer au fond de l'eau."<sup>12)</sup>

인간 생활면의 다양한 형태는 어둠에서 살피볼 것이 아니고 수정같은 투시로서 살피야 한다. 太古부터 형성되고 있는 동굴 속 중유석의 신비한 비밀이나 풀잎에 맺히는 이슬은 순간이나 긴 세월을 거친 신비의 빛을 발하고 있음은 현실의 잡다한 물질의 존재를 환상으로 유혹하는 감정들은 서로 다른 사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언어는 외적이고 내적인 공통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현으로 구사되고 있으며 사상적 탐색이 주어지고 있음을 본다. 언어의 표현은 부재를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진실의 가장은 부재 속에서 찾아야 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모든 희망의 언어이기도 하다. 여러 형태를 위하여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수단의 시적 표현을 목적으로 자동기술의 초현실적 수단으로 긍정화하도록 확신시킨다. *Le corset Mystère* 에서 사용했던 것과 밀접한 *le poème collage* 의 기술을 본보기로 내놓고 있다.

집단의 《nous》로부터 은유의 전체적 집단에서 전복된 기술방법은 초현실적 근거를 진술한다. 융합된 전체속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소리는 외부세계의 혼란을 자아낸다. 우리들은 유실된 것의 창조자들이라고 *poisson soluble*에서 느낄 수 있다. 자동주의는 전체적 유동성의 꿈을 드러내며 *poisson soluble*은 형식의 본질이 혼돈의 한계를 피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은 나, 즉 *poisson soluble* 이 아닌가?》라고 Breton 은 자문한다. 《나는 *poisson soluble* 속에 용해된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주관성 양도에 의하여 객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불안정한 자연성을 언어의 *l'être* 속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신뢰를 위하여 정당화하고 욕망은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poisson soluble* 적인 자신을 결합속에 다시 연관시키는 것이 자동기술의 근본이다.

F. Alquie 는 *poisson soluble* 에서 초현실의 뚜렷한 점을 들고 있다. 《*les images féminines*》는 안정된 심리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12) Ibid, pp. 52-53.



Les fenêtres de la place ressemblent à des rondelles de citron, tant par leur forme circulaire, dite beil-de-boeuf, que par leur perpétuelles vaporisations de femmes en deshabillés. L'une d'elles se penche sur la visibilité les coquilles inférieurs, les ruines d'un escalier qui s'enfonce dans le sol, l'escalier qu'a pris un jour miracle.<sup>13)</sup> . . . . .

영사막이나 흑색 거울 뒤에 숨겨 있는 전통이라는 구속감이 단일화되는 것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사랑스런 감각적 기쁨을 지닌 얼굴과 행복과 사랑에 의하여 만나는 것을 취하는 욕망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poisson soluble의 주위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광명이다. 감각적으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여성화하려는 경향에서 영원을 바라는 영감의 기적을 잡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융해되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보인다.

한편 Philippe Audoin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황홀함을 무의식적 초현실의 상태에서 최초로 느끼고 각각의 대화내용은 예언적 재인식이 되며, 반복진행으로 꿈꾸어진 목적 대상을 상실한 여성적 육체감은 일반적으로 非物質化된 영상으로써 현저히 세분화된 현상을 Nadja에서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poisson soluble에서 존재와 운명의 절대적 규범을 열정이 담긴 애정으로 재인식할 것이고 결정적 변화를 Breton은 내적 갈등의 본질적 근원으로 찾으려고 한다.

현실의 다른 질서속에 同音異意의 언어로 유희의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같은 요소의 반복 진행을 「Ma femme」<sup>14)</sup>에서 육체의 각부분을 性的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연관되는 모든 존재물과 비유하는 것은 통일체로서 女人을 표현하는 모습과 긴밀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정열의 정념을 갖게하는 女人의 육체는 일정한 궤도 진행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적 창조의 원천이지만 파괴의 난폭성에 부체질하는 것도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女人에게서 변혁의 근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환상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게되며 불가사의한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시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女人은 창공에 자신을 날려 보내는 영상을 꿈꾸게 하며 영속적인 우주에 다양한 변화를 부여하는 대상체이다. 이같이 여인의 육체 비유에서 사회 현상의 時・空間의 과거 현재 미래의 초현실적 전체 의식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詩的인 知覺은 대상물에 대하여 풍부한 추상적 이미지의 연상 형태를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존재의 역증적인 유욕으로 볼 수 있다.

Ma femme à la bouche de cocarde et de bouquet d'étoiles de dernière grandeur  
Aux dents d'empreintes de souris blanche sur la terre blanche  
A la langue d'ambre et de verre frottés Ma femme à la langue d'hostie poignardée  
A la langue de poupée qui ouvre et ferme les yeux.<sup>15)</sup>

Ma femme의 육체를 천체 공간의 사물에서부터 자연의 존재물에 이르기까지 비유하는 것

13) Ibid, p. 50.

14) Ibid, p. 57.

15) Ibid, p. 57.

은 시적 표현의 방법적인 면에서 귀납적인 내적 영상을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육체적 순간의 변형에 관해서 무한한 형상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불연속적인 방법의 技術이다.

Ma femme aux fesses de grés et d'amiant  
 Ma femme aux fesses de dos de cygne  
 Ma femme aux fesses de printemps  
 Au sexe de glaïeul  
 Ma femme au sexe de placer et d'ornithorynque  
 Ma femme au sexe d'algue et de bonbons anciens  
 Ma femme au sexe de miroir<sup>16)</sup>

어느면에서는 본래적인 女人의 이미지를 계절적인 감각이나 동물적인 감각의 어학적 측면에서 구체성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종합현상을 보이며, 해결할 수 없고 투시할 수 없는 신비를 女人의 몸체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장막에 싸여 있는 것처럼 마술을 지닌 대상체로,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를 언어적 표현으로는 불가능하게 초현실적인 美的 감각을 詩的으로 同一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존재 가치를 인식하려고 할 때 신비성은 배경을 살피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신비성은 대상물의 지각을 자유롭게 한다. 시각적인 유희속에 언어적 표현이 청각적인 이미지로 바뀐다. 본래의 대상물과 비유의 표현은 二重化한다. 그것들은 지각적인 표현관계의 수정방법을 지적한다. 사물의 형상 출현은 추상적 이미지로서 정확성과 多義的 의미를 지니고 하나의 대상물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표현은 繪畫의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Breton은 사물의 상호연관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수사학적인 언어의 객관성을 창조하는 공간감각을 갖게 한다.

또한 Ma femme는 종합체이고 Max trnst의 결합의식이 드러나 보이기도하며 입체적 이미지로서 대지의 근본인 형상을 볼 수 있다. 또한 女人에게서 우주의 구성요소인 물, 공기, 대지와 물은 모든 창조의 생성 근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Violette Nozières」에서는 장막뒤에 가리어진 사랑은 진정 時・空間을 초월한 죽음도 삶도 아닌 욕망의 詩感을 보이기도하며 욕망은 자신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 상황에 의하여 자신의 목적이 절단되기도하며 자신을 싸고 있는 의상이나 역사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未知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자신이 끌려들어가는 상태의 정신적인 현상인 幻想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풍자성이나 유모어의 표현은 욕망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의식적 發端을 내부에 구체화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더욱 에로적인 욕망의 제

16) Ibid, p. 58.

한된 심리현상은 사랑과 더불어 사회현상과 결부되고 있다. 공포와 꿈과 자신을 배신하고 항상 비유할 수 없이 품고 있는 사랑의 에로시티즘은 신성한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상실하여 《toujours》한 상태로, 절대적 현재의 시간성은 현재 이전의 형상으로 Breton은 표현하고 있다.

Cesse d'être mon ennemi puisque te l'aimais  
 Vous auriez pu vivre ensemble bien qu'il soit si difficile de vivre avec son amour . . . .  
 Longtemps après la cavalerie et la chevalerie de chiens  
 Voilette  
 La rencontre ne sera plus poétiquement qu'une femme seule dans les bosquets introuvables du  
 Champ-de-Mars 1  
 Assise les jambes en x sur une chaise jaune<sup>17)</sup>

만남은 《X》인 엇갈림에 애정을 안전하게 품고 있는 것이다. X점은 도피의 유일한 교차점의 時差에 의하여 구성된다. 《toujours》한 사랑을 동반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은 Mon père oublie quelquefois que je suis sa fille의 표현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사랑의 美學은 고전적이고 이론적인 투시속에 주관과 객관의 상호 유대성을 이루고 있다. 사랑의 본질은 주관과 객관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이상의 결합을 창조하며 모든 진행 과정은 수수께끼적인 신비성에 귀결시키고 있다.

昇華하여 幻想의 世界로 잠입되는 현상을 l'air de l'eau에서 잘 느낄 수 있게 묘사하였다. 모든 것은 飛翔하려는 욕구를 갖고 형상적인 것의 연금술에 관한 꿈은 현실에서 非現實의 세계로 이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Dehors l'air essaye les gents de qui  
 Sur un comptoir d'eau pure  
 Monde dans un baiser monde  
 A moi les écailles  
 Les écailles de la grande tortue céleste à ventre d'hydrophile  
 Qui se bat chaque nuit dans l'amour  
 Avec la grande tortue noire le gigantesque scolopendre de racine<sup>18)</sup>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실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며 미묘한 작용이 동반하는 사랑은 은밀함을 지니고 상호작용을 하며 흑색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랑은 깊고 오묘한 굴레 속에 갇혀 잡을 수 없는 세계를 떠도는 기체와 같은 氣化現象이다.

「Les états généraux」<sup>19)</sup>에서는 유형의 존재가 아닌 무형적인 존재인 il y aura toujours au

17) Ibid, p. 104.

18) Ibid, p. 108.

19) Ibid, p. 181.

vent du rêve의 이미지를 자연의 생태와 더불어 조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언어적인 표현이전의 조화현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Une Pelle 과, dans les sables에서는 현미경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을 보듯이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생태현상은 빛과 더불어 존속하고 빛이 눈(les yeux)에 도달할 때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현상과 더불어 불가사의한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는 것을 감지한다. 마법적인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젊은 여인들의 손짓과 현란한 빛의 조화에 눈(poils mes yeux)은 현혹되어 거기서 일어나는 환상이 자신을 용해시켜 의식을 상실함으로써 자연에 흡수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외적인 지배의식의 축정은 순수한 자연의 순수한 존재가치를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감각적인 현실과 상상적인 비현실은 꿈의 상호 유대작용으로 결합된다. 현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경향과 포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충돌하지만 개별적인 전혀 관련되지 않은 상태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은 무의식적 사상이 發想되는 時差에서 오는 감각 때문일 수 있다. 美的 감각을 갖고 현실 상황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불안을 해소시키며 열정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무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미래의 전개 사상이 있을 수 있고 항구성을 지닌 의식이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색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현실에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영원히 존속하고 있는 사물의 존재가치에 대한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현실은 영원의 순간적인 일시적 양상으로 접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太初부터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이미지를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신이 催眠에 걸려 마음으로 결정할 길을 의식적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시대와 장소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각각의 이미지의 환상적인 詩情은 자신이 인식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공에 떠도는 것으로 夢想에 불과하며 항시 무엇인지 모를 수수께끼의 소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D'où vient ce bruit de source  
 Pourtant la clé n'est pas restée sur la port  
 Comment faire pour déplacer ces enormes pierres noires  
 Ce jour-là je tremblerai de perdre une trace  
 Dans un des quartiers brouillés de Lyon<sup>20)</sup>

복합적인 요소의 근원을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의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은 외부상황에 적응하려는 것보다 내적인 의식으로 활동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 Ibid, p. 184.

「toujours」에서 인간의 의식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억은 한계성을 갖게되고 객관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사상에 대하여 부인하려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C'est qu'on croie pouvoir frapper de grief l'anachronisme  
 Comme si sous le rapport causal à merci interchangeable  
 Et à plus forte raison dans la quête de la liberté  
 A rebours de l'opinion admise on n'était pas autorisé à tenir la mémoire  
 Et tout ce qui se dépose de lourd avec elle  
 Pour les sous-produits de l'imagination  
 Comme si j'étais fondé le moins du monde<sup>21)</sup>

永遠한 사상의 개념은忘却의 상태로 볼 수 있고 toujours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大海를 이루는 것처럼 순간의 연속인 것이다. 기억은 순간의 영상에 대한 것으로 명멸될 뿐이며 영속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한 生成의 근원은 상상에서 발생하지만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신비는 풀 수 없다. toujours의 영속성은 상상도 기억도 아닌 無念의 空間 개념일 수 있다.

통신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전달만이 아닌 마음 깊이 품고 있는 뜻을 이해하는 수단인 것이다. 어둠에서 불빛이 형체를 파악하도록하는 것과 같이 전개될 「Il y aura」와 영원한 존속의 시간성을 나타내는 「toujours」는 과거의 흔적을 살피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既存의 사회질서가 붕괴될 때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표현 특히 詩的 표현에서 고식적인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즉시적인 사상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兩極에서 동시에 타고 있는 양초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초조한 심정이 일고 있을 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진실한 詩人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절대영역은 한계성이 없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詩的 예술일 수 있다. 청각과 시각 사이에 현실의 개념이 설정되고 보잘것 없는 것에서부터 화려한 것에까지, 인간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야생에 이르기까지, 옛부터 현재까지, 미래를 도박으로 생각하게 되는 불확실한 상상을 갖게하며 사랑이나 속임수의 행위에도 바람(du vent)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

女人의 몸속에 포용하고 있는 창조와 신비성, 물을 찾고 있는 삽(une pelle), 열정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불의 광장(dans les sables), 물은 다시 열의 작용으로 氣化하여 大氣에 흡수되는 현상이 모든 변화의 조화에 의하여 꿈의 세계로 펼쳐지는 것이다.

자신을 이탈한 상태, 자신을 망각한 상태에서 환상에 잠기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부에 연상되는 事象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위를 떠나 空間에 날고 있는 화살이 활과는 관계를 끊고 자유로워진 것처럼 육체를 떠난 의식은 꿈에서의 想像이 現實과는 다른 별개

21) Ibid, p. 185.

의 세계로 보이는 것이다.

## V. 結 論

Breton은 그의 作品 性格을 현대의 社會的인 激變 現像에 대하여 일고 있는 無意識的 行動의 規制化된 moralisation에 두지 않고 demoralisation의 측면에서 糾明하려고 한다. 不透明한 思想의 表現은 道德的인 기준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 데서 발생되고 있으며 不道德한 행동과는 다른 脫道德的인 自我意識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이 어떠한 狀況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부터 괴리(乖離) 되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마음 속에 일고 있는 不安과 社會현상에 대한 嫌惡心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神秘性이나 不可思議한 이미지가 극단적인 科學發達과 物質文明에 휩쓸림으로 인하여 自我 喪失에 대한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moral이나 immoral은 自然性이 유지될 때 말하여 질 수 있는 것이며 수수께끼적인 불가사의나 신화가 존속한다는 조건 하에 인간은 규제를 받아들이며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自然性의 조건이 파괴될 때 인간은 狂的 現像을 일으키게 된다.

Andre Breton은 不安定하고, 믿음이 喪失되고, 不確實한 현대를 透視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을 벗어난 자동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계성을 느끼지 않고 존재물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日光이 色光을 띄고 있는 것은 무지개 빛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사물의 존재 의미를 꿈의 영상으로 바꿀 때 각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무시하듯이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André Breton의 詩的 표현은 풍부한 의미 해설과 사상의 극단성을 보이기 위하여 문장론에 구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詩的 개념이 존재의 근본을 각성시킨다는 생각에 따를 것이다.

Les moyens techniques mis en oeuvre sont ceux de toute poésie et portent essentiellement sur la désyntaxisation de la phrase et le jeu qui est alors laissé au mot<sup>22)</sup>

詩的 記述은 언어적인 표현의 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內的 意識의 흐름을 기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그의 작품에서 point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詩的 性格은 욕망의 분출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언어적 표현의 유연성과 변형의 多重的이고 잠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詩의 自動的 표현, 자기 상실 방어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자신과 세계를 묶는 언어의 직능에 대한 미흡함을 느낄 때 현실상황 묘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므로

22) Paule Plouvier, *Poétique de l'amour chez André Breton*, Librairie José Corti, Paris, 1983, p. 116.

의식은 幼想속에 빠지는 절단감을 보인다.

詩는 永遠한 운동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Valéry는 詩를 “Le lyrisme le développement d’une exclamation”<sup>23)</sup> 이라고 하였으며 Breton과 Eluard는 “Le lyrisme est le développement d’une protestation”<sup>24)</sup> 이라고 하였듯이 섬세하고 감상적인 표현보다는 해방을 향한 시적 진실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초현실적 詩는 언어의 秩序로 결연되는 mystification으로 정의 내리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은 작가 자신은 不知不識間에 환상적인 mystification에 빠진다. 또한 언어 질서의 형식과 미학에 치우치면 진실을 가리게 되고 시적 의미를 잃게 된다.

Breton은 전위적인 입장에서 l’être의 本質을 糾明하고 전체 속에 자신을 投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가사의한 현상을 무의식적 감정노출로 조명시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정신적 모험은 반대성, 애매성, 의혹감을 변형시키고 마주하면서 확신성이 뚜렷하고 영원한 力動性에 인간의 모든 결점 그 자체를 詩的으로 存在의 標識으로 하고 있다.

### Bibliographie

- André Breton, Nadja, Gallimard, Paris, 1981.  
 André Breton, L’Amour fou, Gallimard, Paris, 1978.  
 André Breton, Poèmes, Gallimard, Paris, 1978.  
 André Breton, La Clé des champs, Jean-Jacques Pauvert, Paris, 1967.  
 Margurite Bonnet, André Breton, Librairie José Corti, Paris, 1975.  
 Paule Plouvier, Poétique de l’Amour chez André Breton, Librairie José Corti, Paris, 1983  
 Ferdinand Alquie, Philosophie du surréalisme, Flammarion Editeur, Paris, 1970.

23) 24) *Notes sur la poésie, L’Révolution surréaliste*, N° 12, Decembre 1929. Ces notes ((renversent)) les réflexions de Valéry publiées sous le titre *Littérature* dans la revue *Commerce*, XX, été 1929.